

코로나 재확산...소상공인 카드 매출 급감

거리두기·외출자제 여파 8월 마지막주 전년동기비 19% 감소 전북지역 소상공인들 "파산 직전...임대료 지원 등 대책 필요"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카드 매출이 급감, 파산 직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읍·남원·군산·익산·임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했다"며 "배달서비스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저하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2.5단계가 지속하거나 3단계로 격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매월 누적되는 임대료나 재고 해소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월 누적되는 임대료나 재고 해소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며 "한시적이라도 소상공인 관련 정부의 재난 지원 대책을 보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8월 마지막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24~30일) 전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주보다 -6.9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67%를 기록했다.

8월 마지막 주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전북

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된 기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지역민들도 외출을 자제하면서 카드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월 마지막 주(2월 24일~3월 1일) 0.78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대비 정읍 -23.89%, 군산 -22.77%, 고창 -16.61%, 남원 -14.38%, 익산 -12.83%, 순창 -4.23% 등으로 역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동학농민혁명 총서 12권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21종의 고문서를 추출해 번역하고 이를 수록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2'를 발간했다.

신국역총서 12권에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수령이 하급기관에 하달한 문서, 향촌통제 강화를 위해 배포하거나 작성한 문서, 각 군현의 농민봉기 과정을 기록한 문서' 등이 수록돼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향촌사회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총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www.e-donghak.or.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군,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 편다

금과면 매우마을 공모 선정 느티나무·왕벚나무 등 심기 1억8000만원 투입 내년 착수



순창군 금과면 매우마을(금과면민회)이 '2021년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공모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됐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금과면 매우마을(금과면민회)이 '2021년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공모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촌 주변의 경관 조성 및 마을의 유희 공간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한 군은 내년 상반기에 금과면 매우리 158-2번지 일원에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철쭉 등을 심을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가 금과면 생활체육관과 게이트볼장, 금과면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여서 사업 효과 또한 높을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며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주먹 휘두른 취객 제압하다 상처 입혔는데...

"소방관에 벌금형 선고 부당" 국민청원 올라와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오러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두 줄 분량의 짧은 청원은 최근 취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을 옹호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남원 남명건설 등 건설업체

수재의연금 8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건설업체인 남명건설이 수재 의연금 5500만원을 맡겨왔다고 6일 밝혔다.

이병열 남명건설 대표이사는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계성건설과 동일종합건설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보내왔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지구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500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 기탁된 수재의연금은 81건, 5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남원에서는 지난달 6~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섬진강 목마터 터지면서 큰 피해가 났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명건설이 지역 수재민들을 도와달라며 의연금 5500만원을 남원시에 쾌척했다. <남원시 제공>

전북도, 10만6000농가에 농민수당 60만원씩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제정한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10만6000여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4월 신청 접수한 11만4000여 농가 중 10만6147농가를 최종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총 637억원의 수당은 추석 전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된다.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 등을 거친 농민 공익수당이 올해 첫 열매를 맺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농민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기초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키농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연희네슈퍼

특집
가을에 '뉴트로' 하실래요?

문화상품, 카페, 생필품 북고 마케팅 열풍
90년대 감성 그룹, 레트로 음반 러시
여기가 레트로 '캠성' 넘치는 곳

기획
화가 사랑한 정원
모두의 명소가 되다

건축현 '운보의 집' 모네의 정원
민명하씨의 '화가의 정원사'

문화는 품은 건축물②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배어난 건축이 입소문
신안 압해읍종합복지회관

클릭, 문화현장①
목욕, 주얼리, 도자기 등 체험
양림 팽귤마을
공예특화거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 타이거즈 마운드 고졸 루키 셋별 정해영

예향 초대석

한복 디자이너·전통 복식연구가
김혜순
"한복 짓기는 자기다움 찾아가는 것"

우리 땅 우리 문화③
'불법이 머문' 천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

문화 트렌드
5060 세컨드라이프
'슬기로운 집콕생활'

스포츠 회재
'가난한 꿈부자'
레슬링영웅 김원기 3주기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①
바그너의 '종합예술' 혁명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②
화가 박인식의 할매공방

문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프로그래진 심장을 짝 피자'
8월의 책,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전시 리뷰
이강미술관
<2020 Earth & Museum> 7주째 >전

유연준의 도시건축④
부동산 정책의 정치학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⑤
세계가 열광, 한류 스타의 여제와 오늘

싸목싸목 남도·반박·극성
자연속 가을과
곡서 정영 1주년

심진강과 철길 따라서
트실 토란, 명품 멜론